

◎ 韓國大學博物館協會聯合展示會(目錄冊子刊行)

六月五日부터 十四일까지 全南大博에서 開催되었는데 出品校는 慶北大 崇大 東大 釜山大 全北大 建大 陸士 高大 全南大로서 金屬 陶土 書畫 佛教美術과 民俗品을 合計 一九七件이었다. 同期間中은 全南大開校十五周年祝典中이어서 盛況을 이루었으며 六月 十三日 午後二時부터는 다음과 같은 紀念講演會가 同校講堂에서 있었다.

李弘植 · 古代國家成立과 百濟

黃壽永 · 新羅文武大王陵의 調査

秦弘燮 · 新羅皇龍寺址舍利孔의 調査

(同日午後六時부터 全南教育委員會講堂에서 同一內容의 講演이 있었다.)

— 第八卷 第七號 通卷 八十四 —

高麗梵鐘의 新例(其十)

— 淸寧四年銘 銅鐘 —

黃 壽 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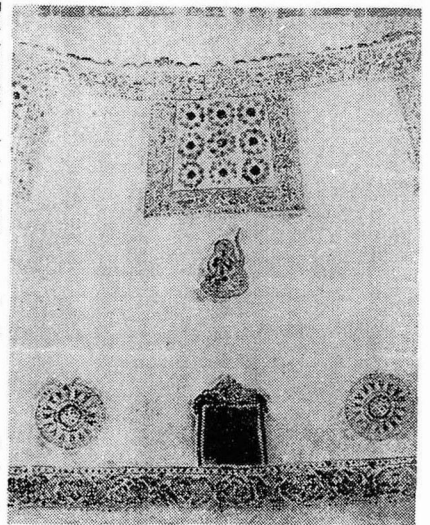
지난 四月 十八日 京畿道 驪州郡 金沙面 上品里에서 同里 二二九번지 居住 李榮九氏에 의하여 우연히 발견된 在銘銅鐘은 해방후 出土된 적지 않은 高麗銅鐘중 아마도 最大最優의 遺品이라 하겠는데 保存이 完全하며 出土地도 확실하여서 이 部門의 큰 收獲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銘文이 있어 그 年代를 확정지을 수 있는 것은 高麗에 들어서서 新羅鐘樣式을 忠實하게 繼承한 그 系譜위에서 하나의 標準을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 新鐘 또한 近年에 流行하는 探知器具의 使用으로써 收拾된 것이라는바 出土後 곧 注目되어서 法的節次를 따라 기타의 伴出物과 같이 當局에 引繼된 것은 또한 多幸한 일이다. 필자는 이 新鐘을 初見

第八卷 第七號 通卷 八十四號

하고 그 作品으로서의 優秀함에 새삼 놀랐으며 이같은 새로운 資料의 增加를 고맙게 생각한 바 있었다. 이 新鐘은 出土直後 金元龍教授에 의하여 現地에서의 調査가 이루어졌으며 그後 서울 國立博物館에 移管陳列되었는데 出土地①는 「傳說由來없다」고 報告되었을 뿐이며 필자가 아직 調査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二

이 鐘은 全高 八三·二cm (鐘身高 六六·二cm)로서 크기에 있어 大鐘이라 할 수 있다. 樣式은 신라以來의 通式을 그대로 따라서 鐘身部와 鐘鈕部로 上下兩別된다. 먼저 鐘身部는 兩帶를 그 上下에 周回시켰는데 下帶幅이 六cm로서 上帶幅 四cm보다 넓은 것은 他例와 同一하다. 이 上下帶는 모두 同紋인 바 上下에 連珠紋이 있고 그 사이에 唐草紋을 새겼다. 다음에 上帶와 接하여 鐘身 上部 네 곳에 等間으로 梯形(上幅 十九×下幅 二十三×高 一六cm) 乳廓을 배치하였는데 乳帶는 三面同幅으로서 三·四cm이며 外緣에만 珠文帶가 있고 그 안으로는 周帶와 같은 唐草紋이 둘러져 있다. 그리고 이 乳帶안에는 가늌이 半圓形의 九乳를 縱橫各三으로 배치하였는데 乳座로서는 單瓣重葉의 蓮花紋으로써 하였다. (乳廓間은 下隅角에서 一六·五cm) 乳廓直下의 鐘腹에는 佛菩薩計 四軀를 交代로 各一씩 새겼는데 모두 雲上蓮座위에 跏趺하고 각기 相對토록 하였다. 그중 菩薩坐像은 圓形頭身光을 지니고 合掌하였는데 寶冠 瓔珞에 이르러까지 細刻되었다. 撞座는 이와는 달리 乳廓間에 下帶와 매우 接近하여서 各一씩計 四座를 비치하였는데 모두 同紋으로서 珠文外帶안에 十





六瓣의 蓮花紋을 돌렸으며 그 中央에는 子房과 花藥을 새겼다. 이와같이 佛像과 撞座를 乳廓下部와 그 間地에 交代시켜서 計 八個處에 周回시킨 것은 新羅 上院寺鐘을 最古例

로 삼는 新羅鐘에서 乳廓間에만 飛天撞座各二의 交代配置方式과도 다르며 도리어 新羅聖德大王神鐘의 경우와 같다. (이 聖德鐘에 있어서는 乳廓下에 飛天各一과 乳廓間에는 撞座二座와 銘文이 二處에 交代되고 있다) 그리고 國內의 塔山寺鐘(海南 大興寺藏) 등의 撞座佛像의 배치가 이 新鐘과 恰似함은 注目할 만하다.

銘文은 下帶에 接하여 方區를 만들고 그 上部를 花紋으로 장식한 속에 四行으로 陰刻하였는데 楷字로서 字徑一·三cm이다. 이같은 方區刻銘의 方式은 德壽宮美術館所藏 統和二十八年(一〇一〇)銘 天興寺鐘 또는 在日本 佐賀縣松浦郡 惠日寺藏 太平六年(一〇二六)北寺鐘 등에서 그 類例를 볼 수 있는데 이 新鐘의 경우 龍鈕의 頭部方向과 一致되어서 乳廓直下에 해당함은 梵鐘의 正面을 가르는 것으로 보인다. 銘文은 다음과 같다.

特爲

聖壽天長之願鑄

成金鐘一口重一百

五十斤

淸寧四年戊戌五月日記

이 銘文中에는 獻納寺院이나 發願에 따르는 僧俗名이 아니 보이고 있다. 淸寧은 遼道宗初의 年號로서 그 四年이 高麗文宗十二年 서기 一〇五八년에 해당함으로써 十一世紀 中葉인 高麗 佛教文物 極盛期와 一致

하고 있다. 그리하여 上舉한 統和二十八年銘 天興寺鐘보다 半世紀의 年差를 보이면서 國內鐘으로서 그 次位에 들 수 있는 作品이다. (이들 兩鐘사이 또는 그 以前에 두어야 할 高麗初期의 遺鐘들은 거의 日本에 搬出되고 있으니 興海大寺鐘(九五六今亡) 靈巖西院鐘(九六三) 臨江寺鐘(一〇一九今亡) 巨濟北寺鐘(一〇二六) 太平十年鐘(一〇三〇) 靑光大寺鐘(一〇三三) 등이 있다. 古蹟圖譜 第七冊收錄) 끝으로 鐘身部에서 注目되는 것은 그 上緣에 이르러 上帶와 接하여서 立花形蕃頭紋帶가 낮게 둘러 있는 點인 바 그 以前의 羅麗遺鐘에 있어서는 立狀이 아니라 蓮花紋帶가 鐘頂周緣을 장식하고 있었던 것과 對比할만하다. 이같은 立狀帶는 그 후 주로 蓮花三角紋帶가 되어서 高麗鐘의 一特色을 이루기도 하였다.

三

鐘頂部 또한 通式을 따라서 中央에 甬筒이 있으며 그것을 둘러 隻龍이 鐘鈕를 이루고 있다. 甬筒의 높이 二一·二cm 同徑四·七cm로서 鐘高에 비하여 큰 편인 바 甬筒은 六節로 나누어져서 唐草紋이 새겨졌으며 龍身은 前後各一足を 나타내어 圓刻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鐘頂部는 둥글게 隆起되었고 그 둘레에 一條의 凹線이 보이고 있는 것은 鐘身部와 鎔接된 痕跡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곳에서 특히 注目되는 것은 懸架를 위한 鐵索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一部缺失되기는 하였으나 原形을 짐작케 하는 點이다. 全面에 淡靑의 녹이 고르게 덮여 있으며 鐘腹一部에 鑄造에 따르는 小孔하나가 있을 뿐 다른 缺點을 찾을 수는 없다. 全高八三·二cm에 비하여 下徑이 五三·五cm(厚三·五cm) 上徑三八cm이어서 全體로 보아 下腹部가 膨脹된 形式을 보이는 바 各部紋樣이 適當한 크기와 그 配置 및 上下帶를 비롯한 彫紋의 優麗함은 鑄成의 洗鍊된 手法과 더불어 高麗初頭를 장식하는 名鐘이라 하겠다. 古來로 많은 銅鐘이 日本으로 건너가 그 數文에 있어 國內鐘을 凌駕하고 있다 하였는데 이제 이 新鐘은 그 損失의 一部를 메꾸어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鐘과 동시에 出土된 靑銅佛器 合計 十三點이 있다. 이와같이 鐘과 佛器가 同伴되는 遺例는 近年에 이르러 增加되고 있음은 그 土中事

由를 짐작케 함이 있다.

註 ① 出土地인 驪州金沙面一帶에는 寺蹟이 풍부하다. 「朝鮮寶物古蹟

調査資料」에 의하면 寺址(走鹿里) 佛像(外坪里) 佛塔(道谷里) 塔(宮里)들이 보이고 있다.

② 鐵鐘

銅鉢中

口徑二二·二cm 肩部徑九cm 高一五·五cm 一個

銅鉢小

口徑一一·五cm 저徑六·五cm 高四·五cm 八個
"一一·五cm " 六·五cm " 四·〇cm 一個

傳僊鳳寺址七層石塔

金 禧 庚

一九六四年初에 滄浪 張澤相氏가 美國 『알링톤』에 있는 故케네디大統
領墓所 옆으로 自己所有의 石塔一基를 보내기로 提議하였다는 記事가 都
下의 各新聞에 報道①되었던 事實이 생각날출 믿는다. 이어 秦弘燮敎
授를 비롯한 數名의 同人들의 調査를 거쳐 그 輪廓이 紙上에 알려진 바
도 있거니와 筆者도 곧 그 곳을 다녀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後 別다른
消息도 없기에 이 塔은 無事히 있을 줄만 믿었는데 數日前 新吉洞七
五의 四로 다시 찾아갔던 바 塔이 있던 자리는 都市計劃에 따라 眞 한가
운데가 되어 버렸고 所有者 張炳惠氏도 집을 處分하고 移徙했다고 하
기에 三年동안에 그렇게도 많은 變化가 있었던가고 생각되어 歲月の 덧없
음이 새삼스러히 느껴졌다. 그럴수록 塔의 行方이 더욱 궁금해져 여기
저기 물어 겨우 新吉洞八八의 一二號로 同氏를 찾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千萬밖에도 再昨年 또는 昨年 가을(十月)에 『하와이』에 사는 滄浪의 따
님한테로 보내겠다는 것이 아닌가... 밤하늘의 불꽃처럼 暫間 閃び었다

가 먼곳으로 가버린 이 塔에 對하여 늘 關心을 가졌던 한 사람으로 記錄
에나마 남겨 두어야 되겠다고 느껴져 記憶을 더듬어서 다음에 概要를 적
어 두려고 한다.

一、原所在地 및 滄浪과의 因緣

張氏의 故鄉인 漆谷金烏山쪽의 산관이었던 僊鳳寺址②이며 다른 石彫
物들과 같이 이리저리로 뒹글고 있던 것을 모아서 그들을 서울로 운
려 보냈었는데 石塔은 一九三二年에 安養別莊으로 移建되었다가 一九六
二、三年 十二月頃 新吉洞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石佛(高八〇cm)은 張
氏가 所藏하고 있다고 함

二、塔의 樣式과 年代

現在 單層基壇이며 넓다란 甲石上에 屋蓋石위에 屋身이 붙은 塔身石
이 六개 얹혀져 있으나 別石으로 생각되는 第一屋身石 및 七層屋蓋石은
缺失된 것 같고 相輪部도 露盤은 갖추지 못하고 相輪石이 三개 남아 있
을 뿐이다.

基壇部는 兩隅柱를 刻出한 二面石(撐柱도 하나 있는 듯하나 磨滅로 確
認 못하였음) 사이에 二枚의 板石을 嵌入하였다. 甲石은 一枚石으로 一
隅가 破損되었음며 두꺼운 副椽이 달려 있고 위에는 屋身의 頂이 三段얹
게 마련되었다.

第一層屋蓋石... 屋蓋추녀에 橫으로 一線이 그어졌고 그 上面엔 帳幕
을 드리우고 下面엔
蓮꽃이 十一개 (或
은 十二?)를 섬세
한 솜씨로 刻出하였
고 屋蓋石위에 매우
낮은 屋身을 造出하
였다. 落水面은 曲
線을 이루다가 아래
에 이르러 平坦해져
感이 있고 轉角은 끝

